

## 22. 휴거의 날... 핵폭탄이 떨어지고 마이애미가 핵공격을 받고 소멸되어질 때.

2015.03.12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 주님께서 제가 휴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클레어) 네,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 나는 너가 이 일들을 끝내는 기간을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단지 내가 너에게 준 일들을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게 언제인지 말하지 않았어.

(클레어) 주님, 주님께서 휴거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정말 매우 혼란스러워요.

(예수님) 이 혼란스러움을 내가 정리해줄게. 먼저 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어. 너는 그것이 휴거 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어떠한 기간도 주지 않았어.

(클레어) 오..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함정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꼭 붙들고 있어라. 내가 너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너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가 올 거야. 휴거 후에.

(클레어) 휴거 후에요?

(예수님) 맞아. 휴거 후에.

(클레어)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더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 하셨었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미 그들에게 더 시간을 줬어.

(클레어)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3년처럼 몇 년을 의미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느꼈어요.

(예수님) 나는 그것을 절대로 너에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타이밍이 관련 되어있어. 정확한 타이밍이 관련되어 있어.

(클레어)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또 다시 불신이네.

(클레어) 네. 저의 죄를 인정해요. 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때 저는 불을 피우고 에스겔(남편)을 위해 저녁식사를 데워야 했고, 이것은 반가운 휴식이었어요. 저는 제가 남편에게 가면 저의 혼란스러움을 도와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악마에게 놀림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인지예요. 저는 돌아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았어요.

(예수님) 이제 너는 만족하고 평화롭니?

(클레어) 네, 주님.

(예수님)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 달콤한 신부야, 에스겔은 너에게 나의 대변자이고 너의 보호자야.

(클레어)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의심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달콤하다고 부르실수 있으세요?

(예수님) 나는 불쾌하지 않아. 너의 성미가 급한 것은 오직 나의 온유함과 겸손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클레어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 나는 너의 고집을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

(클레어) 주님은 진정으로 온화하고 용서해주는 예수님이세요.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이것은 어렵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너의 고군분투를 이해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리했고, 이제 나는 너를 채워야해.

### **여기 주님의 메시지와 클레어의 꿈에 대한 발췌예요. (2014.11.03)**

(클레어) 핵 폭탄으로 인한 마이애미의 소멸에 대한 꿈과, 이 꿈에 대한 메시지와 약속은 불과 며칠사이에 받은 것이예요.

저는 아열대 바다의 하얀 모래 해변에 있는 꿈을 꾸었고, 작은 어선 주변에 그물망과 원시적인 도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었어요. 맑은 날이었고 오전 중이나 이른 오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물망을 청소하고 있었고 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바다 건너편이 보였고 주먹 크기만한 구름이 수평선에 보였어요. 그것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핵폭탄을 맞은 것이었어요. 저는 외쳤어요... “오 주님!”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깬어요.

저는 즉시 이 꿈이 성령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자비를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그 후에 저는 그 도시의 위치를 찾아보았고 동부 바하마 해안에서 바라본 휴스턴, 혹은 쿠바해변에서 바라본 마이애미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애미였다는 것을 매우 확신해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넘어선 것들에 대해 파고들어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 앞에는 청록색 바다 가장자리로 아름다운 백사장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해변을 따라 최대한 볼 수 있는 먼 곳에 큰 회색 덩어리들이 해안선을 따라 보였어요. 제가 그곳을 더 자세히 보았을 때 저는 그 덩어리들이 시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 쪽을 돌아보고 무거운 심정으로 여쭙보았어요. “저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나소 (바하마의 수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학살이 있을 거야. 몇 년전에 너가 받았던 메시지 기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 지구의 사는 의인들아!’

(클레어)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이 메시지의 끝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저는 이제 바하마와 마이애미 사이의 지구위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은 울고 계셨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곳은 검은 한 덩어리 같이 보였어요. 저희는 한번 가까이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움직이는 생존자는 없었어요.

(예수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니?

(클레어) 무감각함이 저의 존재 전체를 삼켰고 저는 단순하게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지구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후에 정말 빠르게 너희 둘은 휴거 되어 질거야.

(클레어) 저는 여쭙봤어요.. 주님 이 상황이 일어난 후에 언제 저희를 휴거해 가실 건가요?

(예수님) 일주일 안에.

(클레어) 7일이요?

(예수님) 그게 최대야. 그 시점 이후에는 너희들이 지구에 있을 이유가 없어.

(클레어) 주님,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런 학살은 한번도 전에 지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 인류가 나의 창조물에 이런 종류의 피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어. 종말이 곧 다가오지 않았다면 나는 개입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너는 지구를 빠르게 떠나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재기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아.

### **이제 다시 원래 메시지로 돌아왔어요. (2015.03.12)**

(예수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마무리하고 그날을 위해 너희들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너희들을 빠른 길 위에 올려놓았어. 오직 기도와 굳건함이 미국과 세계를 강타할 끔찍한 폭풍에서 해체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매일 너희 두사람이 매 순간에도 확실하게 굳건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

(클레어) 저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너는 깊은 평화를 느낄거야. 너희 둘 다 조금씩 준비에 다가가고 있어. 너희들의 집중을 계속 유지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라. 제발 너의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남겨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너의 온 힘을 쏟아라. 클레어, 내말 듣고 있어?

(클레어) 너무 헛갈려요.

(예수님) 그냥 나와 함께 견뎌라. 세계를 공황상태로 만들고 오바마가 평화의 고삐를 잡으며 영웅으로 선언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하고 제한적인 핵미사일 교환이 있을 거야.

미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통신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거야.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통신은 필수적이야. 승리자가 전 세계에 방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승리를 즐길 수 있겠어? 미국은 어느누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이 황폐함에서 회복되어질 거야. 왜냐하면 다가올 모든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야.

너의 나라는 더 이상 세계 강국이 아니게 될 거야. 미국은 처리해야 할 거대한 방사능 오염과 재건 문제들이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지하도시들에 있을 거야. 법과 질서가 통제불능이 되고 범죄자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강간과 약탈을 할 것이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거야.

그때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는 때야. 너희들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라. 나는 그 날에 너희들에게 갈 거야. 다시한번 말해. 너희들의 고개를 들어라. 나는 그날 너희들에게 갈 거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공포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어. 이것이 너희들이 기다려온 영원의 순간이야.

(클레어) 주님, 저는 할말을 잃었어요.

(예수님) 이것은 올 거야. 틀림없이 올 거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라. 내가 갈 거야.

(클레어)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돕기위해 이미 나의 천사들을 보냈으니 너희들은 넘어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모두 제 자리에 있을 거야.